

# '우리'와 '너'의 정치성 확립을 위해

## — 「민족연구」 창간에 붙여 —

趙 政 男  
<고대교수·한국민족연구원장>

20세기 말의 지구환경은 분명 '민족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경쟁적인 정치이데올로기 시대를 마감하면서 닥치고 있는 작금의 세기적 전환기 상황에서 배타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민족'과 '민족주의'의 힘은 그 어떤 대항세력의 존재도 인정치 않을 만큼 도도한 위세로 온통 전세계를 흔들고 있다. 국제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상황에서도 좀체로 가실 줄 모르는 개별 민족과 민족의식의 저같은 활력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국제화와 민족주의는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공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었다. 국제화를 추구하면 그 만큼 민족적 경계나 구획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며, 반대로 민족주의를 강조하면 국제화와 세계화와는 일정거리를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이같은 일반론을 뒤엎고 있다.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가면서도 민족과 민족주의가 점점 뚜렷하게 살아움직일 뿐 아니라, 민족과 민족주의가 강조되면서도 국제화를 여기에 별다른 무리없이 접목시켜나가는 국민국가들의 행태가 널리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족의 살길을 국제화에서 찾으면서도, 그러한 국제화를 통해 얻으려는 이익은 궁극적으로 '민족이익'이라는 사실에서 국제화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의 활성화를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다. 결국 이러한 상관관계에서 보면 민족없는 국제화는 '空洞化된 國際化'이며, 국제화없는 민족주의는 '孤立된 民族主義'로 각각 그 고유의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민족을 살아남게 하고 또 그것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주의의 수단을 자기것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또 개별 민족국가가 국제화의 수단을 동원하여 견워드린 이익을 개별적인 민족이익으로 전환시키지 못할 때 더 이상 국제화를 동원하는 주체 그 자체의 생존이 위태롭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민족과 민족주의의 터전에서 국제화가 출발되었고, 그러한 국제화는 또 개별적인 민족이익에 봉사하면서 그 역사적 이의를 감당하는 과도적이며 수단적인 민족생존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볼 수 있다. 국제화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새로운 시대환경 속에서도 민족과 민족주의는 여전히 세계질서의 가장 본원적인 주체이며, 그것이 가진 역할과 무게는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현세계의 불변의 **主體**이자 **客體**라고 할 수 있다. 근대이래 시대상황의 급격한 변화과정에도 한결같이 지속적인 모습으로 중심적인 자리를 지켜온 민족과 민족주의는 과거 냉전체제 아래서의 격심한 이데올로기 대립 과정에서는 물론,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화의 환경에서도 여전히 그의 중심적인 위치와 무게를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가면서 그 존재감을 확대시켜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세기말적인 과도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의 원칙 또한 민족과 민족의식의 정비와 무관치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개별 민족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개별적인 민족의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시대적인 과업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무한경쟁의 국제사회에서 개별 민족국가가 생명력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가꿔나가야 할 것이 다름아닌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근대적인 민족정체성의 확립과 합리적인 민족의식의 고양일 수 밖에 없다.

민족과 민족주의의 역할과 무게는 우리의 경우에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단일민족의 純白的인 민족환경의 혜택을 받은 우리에게 민족과 민족주의 문제가 고루하고 퇴색된 낡은 명제로 인식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민족문제에 있어 별다른 도전도 특별한 내용변화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긴 세월을 보내오는 동안 우리는 민족과 민족문제에 대해 너무나 태연했고 무심했다. 우리에게는 우리 '韓民族'의 정체성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도, '韓民族'의 민족적 동질성의 확보를 위한 광범위한 민족정책의 수립도, '韓民族'의 민족세 확산을 위한 내실있는 대안 마련과도 담을 높이 쌓기만 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은 '韓民族至上'적인 국수주의적 사고였다.

그러나 시대상황은 크게 변했고 우리의 민족환경 또한 크게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양한 피부색의 외래인들이 어느새 우리의 이웃으로 바짝 다가와서 함께 생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젊은이들이 스스럼없이 이들과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이제는 별스런 일이 아니게끔 되었다. 뿐 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 중의 한둘이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또 외국생활 경험을 가진이들이 없는 집안이 별로 없을 정도가 됐다.

### 3 '우리'와 '너'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생활의 국제화', '인간의 국제화'라는 민족국제화의 보편적인 현상이 우리에게도 닥친 것이다.

울타리 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민족의 활동무대는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계 각지역으로 그 영역을 넓힌지 이미 오래다. 세계의 주요국가는 물론 아프리카의 오지까지도 우리 교포들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체 한민족인구의 약 1할에 해당하는 수가 해외에 이주해 살고 있다. 한반도의 울타리를 벗어나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의 민족적 아이덴티티는 무엇일까. 그들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것이며.

우리의 민족환경의 이같은 복잡화, 다양화는 결국 '한민족'의 민족경계는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한민족의 생활공간은 또한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엇이 우리를 '한민족'이게 하며, 무엇이 우리를 타민족과 구별시키는 경계일 수 있을가 하는 의문을 강하게 한다. 고유하고 분명했던 단일민족집단으로서의 역사를 이어온 '한민족'을 둘러싼 이같은 새로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과거와 같이 분명할 수는 없으리라. '한민족'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도 이른바 '想像의 共同體'가 가지는 막연함과 애매함의 범주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민족과 민족성의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도 결코 무관하거나 낯선 문제일 수 없다. 이래 저래 우리들이 자랑스럽게 견지해온 우리의 '단일민족'적 민족질서는 새로운 도전 앞에 내세워 졌다. 우리가 원하든 아니든 간에 다시한번 우리는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전래의 단일민족성의 확장을 비롯한 새로운 민족질서의 형성이 우리와 우리민족의 생존을 위한 작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넓게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심적인 세계적 현안의 하나이며, 좁게는 '우리들'의 정체성 확보와 연관된 가장 직접적인 문제이기도 한, 민족과 민족주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지를 간행해 보려는 생각을 한지는 이미 여러해 전의 일이나 그 동안 차일피일 하다가 지금까지 미루어 졌다. 오늘 초출한 모습으로 시작하는 이 작업에는 걸으로 드러난 외형보다는 더 깊고 큰 함의가 내포되어 있음을 전하면서 창간사에 대신코자 한다.

1998년 7월 19일